



소 비가 여전히 침체되고 있지만 2월에도 돈육공급 부족현상이 계속적으로 돈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달로 보인다.

소비침체로 인해 국내 삼겹살 시세도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 저가의 수입냉동육이 대량 방출될 예정이지만 국내 돈육과의 품질 경쟁이 어려워 돈가 하락에는 크게 영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국내 공급부족사태는 적어도 올해 한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 2월 들어

따라서 돈가 강세현상은 이달에도 이어져 적어도 구정이 지난 이달 말까지 kg당 2,800~2,900원대의 높은 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돈가 변화는 돈육소비가 증가하고 돈육 수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3월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강세원 이사
(퓨리나코리아)

3월 이후 돈가 결정요인은 수입돈육의 품질과 국내 돈육의 수출확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

지육 kg당, 2,800~2,900원대 가격형성 예상

서도 국내 사육두수 현황을 알려주는 전국 양돈사료생산량이 전년대비 10여%가 감소된 가운데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원료돈 공급처를 선점하기 위한 육가공업체 및 유통업체 등의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되고 최근 정부 및 여러 지자체에서 수출 원료돈 생산확대를 위한 각종 자금지원을 발표하는 등 원료돈 확보를 위한 높은 관심과 물밑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산지시세는 계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돈가 강세현상은 이달에도 이어져 적어도 구정이 지난 이달 말까지 kg당 2,800~2,900원대의 높은 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돈가 변화는 돈육소비가 증가하고 돈육수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3월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동수 부장
(제일제당 육가공업무팀)

그간 논란이 된 도매시장 돼지 평균가격 산정 방법 변경에 따른 생돈 구매 요율 적용 문제가 정착된 상황에서의 주요 변화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등급제와 육가공업체 자체 구매기준이 혼용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돼지 자체 정육 수율과 품질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덴마크나 캐나다의 PACKER가 적용하는 방법에 근접된 것으로 2000년 경에는 선진국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국내 농가들도 주목해야 할 점은 좋은

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월초와 월말 돈가차가 크게 날 가능성이 있어 출하농가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소비측면에서 보면 삼겹살의 판매가 매우 저조하고 수출 판가 하락으로 인해 육가공업체들이 과거 어느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생육 판매 비율이 높은 회사는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으며 돈육 소비가 활성화 되는 4월부터는 육가공업체의 경영여건도 다소 호전될 것으로 믿는다.

이제는 국내 일일 총 도축두수 중에서 육가공업체의 처리두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육가공업체로 납품되는 원료돈은 점차 좋

2,800원~2,900원/kg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품질의 돼지 사육이 양돈 사업의 경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외국의 양돈과 달리 기능성 사료 투여한 돼지의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식육제품과 직결되어 농가 손익에 다소 보탬을 주는 한해가 될 것으로 믿는다.

2월 중순에 고유의 명절인 구정이 있고 구정이 돈육 소비량 증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나 과거의 예를 보면 구정전에 다소 돈가가 상승하고 있는 바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돈가는 2,800원~2,900원/kg 수준에서 유

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돈 농가들도 돼지 품질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양돈**



2월 중순에 고유의 명절인 구정이 있고 구정이 돈육 소비량 증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나 과거의 예를 보면 구정전에 다소 돈가가 상승하고 있는 바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철 국장
(미트저널 편집국)

돼

지고기 유통가격은 다소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국내산 뿐만 아니라 수입육도 마찬가지로 미미하나마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내산 하이브랜드 냉장삼겹살은 8천6백원대에서 8천7백~8천8백원대, 냉동삼겹살은 7천원대가 예상되고 있다. 중급브랜드육 역시 kg당 50~1백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반육 냉동삼겹살은 여전히 6천원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육의 경우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 연말과 올 1월에 비해 유통가격 역시 kg당 평균 4천~5천원을 조금 상회한 상태

아일랜드, 네덜란드, 헝가리 등 기타 1만5백5톤(19%) 등이다.

수입량을 기준으로 덴마크산이 여전히 국내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 수입육 시장가격을 주도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덴마크산 냉동삼겹살 유통가격은 kg당 평균 4천5백원~4천5백50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 덴마크산 제품 중 kg당 3천6백원~4천원에 풀리고 있는 물량도 있다. 이 가격대의 물량은 약 4천여톤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 일시에 풀리지 않고 조금씩 풀고 있어 아직까지 시장가격 흐름에는 큰 영

국산 · 수입육 유통가격 동반상승 기대

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수입된 돼지고기는 총 5만5천7백여톤으로 삼겹살이 전체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소비선호도에 따른 수입형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입육 재고량은 약 1만여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상반기 수입육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국가별 수입량은 ▲덴마크 2만7천3백22톤(49%) ▲벨기에 5천8백58톤(11%) ▲미국 5천3백72톤(10%) ▲캐나다 4천96톤(7%) ▲핀란드 1천9백38톤(3%) ▲스웨덴 4백24톤(1%) ▲영국 2백7톤(0%) ▲호주, 프랑스,

향이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국가들의 삼겹살 유통가격은 kg당 프랑스산 4천7백원~4천8백원, 네덜란드산 4천원대 초반, 헝가리산 3천원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수입육 가격은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가격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주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관심있게 봐야할 것은 2월 들어 수입이 시작되는 미국산 냉장삼겹살의 유통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이다. 물량은 얼마안되지만 유통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전략을 계획하고 있어 돼지고기 소비시장 깊숙히 파고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돈**